



한라포커스 스마트폰에 갇히는 아이들 (하)

과의존 예방 절실... 상담 인력 늘려야

6개월 전문기관 상담한 초등 3년 A양
“친구들과 노는게 재밌어요”... 변화세 감지
전문가 “부모, 스마트폰 사용 룰 모델 데야”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은 한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산다”, “친구보다 스마트폰이 좋다”고 공언히 말할 정도였다. 갈수록 의존현상이 심해지자 부모와 함께 스마트폰센터를 찾았다.

지난해 말부터 매주 1회씩 이어진 상담에선 ‘햄스터와 놀아보기’처럼 스마트폰을 대신할 ‘놀이’가 주어졌고 또래와의 관계 맺기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6개월간의 상담 끝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 눈을 피해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던 아이에게서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다”는 말이 돌아왔다.

A양의 사례는 어린 아이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지나친 의존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가정에서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밥 먹을 때나 잠들기 전 등 사용을 자제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아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

황연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스

마트럼센터 소장은 “과의존 예방교육을 하다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중독이야’라는 말을 스스로 없이 하는 아이들을 만나곤 한다”면서 “아이한테만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롤 모델이 돼 같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 충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인터넷 중독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하지만 도내 전문 인력은 일부에 그친다. 유아동은 물론 청소년, 성인 대상 상담을 진행하는 제주스마트럼센터의 경우 상주 인원이 3명뿐이어서 강사 13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 상담의 경우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

서도 이뤄지지만 전문성 부족, 상담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히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3주 이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상담 의뢰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그보다 길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투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제한되기도 한다”면서 “전문 인력 확충을 비롯해 과의존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은기자



전 청와대 셰프의 요리 5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제4회 음식박람회서 전 청와대 셰프 4인이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민관합동 동굴조사 실시”
제2공항비상도민회 촉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은 제2공항 성산을 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제주도가 함께 하는’ ‘민·관 합동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들어가면서 조사 대상지를 제주시 서부지역 일원으로 한정했다”며 “제2공항으로 인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시기에 서부지역만 조사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엇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과업 대상 범위를 제주 전 지역으로 넓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건설공사 중 동굴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발견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됐다”며 “동부지역에 대한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허위사실 유포 30대 집유2년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학부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재 모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이었던 유씨는 지난 1월 24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학부모 20여명을 초대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

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시겠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북상중

올 발생 태풍 중 가장 강력
기상청 “제주 영향 예의주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6일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다. ‘하기비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빠름’을 의미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괌 동쪽 1450km 바다서 전날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최대 풍속 초속 17m 이상을 기록해 태풍으로 발달했다.

‘하기비스’는 현재(6일 오후 3시 기준)괌 동쪽 1050km 부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0hPa, 최대풍속은 초속 24m(시속 86km)이며, 강풍 반경은 200km다.

‘하기비스’는 계속 서쪽으로 이동

하다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악’ 강도의 소형급인 하기비스는 8일부터 ‘매우 강’ 강도의 중형급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이번 태풍이 제주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고 주변 기압계 변화로 진로와 이동 속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기비스는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태풍 강도가 세고 규모가 커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몰래 찍으면?... 반드시 잡힌다!

제주 최근 5년 불법촬영 검거율 95%

최근 5년간 제주에서 400건에 육박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397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2건, 2015년 125건, 2016년 92건, 2017년 69건, 2018년 79건이다.

397건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것은

377건으로, 95%의 검거율을 보였다.

범행 장소별로 보면 노상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주택 55건, 교통수단 34건, 상점·노점 18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은범기자

통학로 불법광고물 단속
제주시 한달간 6495건 정비

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읍·면·동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통행량

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총 6495건(고정광고물 8건, 유동광고물 6487건)을 정비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8월말까지 ▷고정광고물 407건 ▷현수막 3만 9052건 ▷벽보 31만7297건 ▷전단 758만871건 ▷배너 386건 ▷입간판 3872건 등 불법광고물 총 794만1885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8개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제주해경 좌초선박 구조

4일 오후 6시45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쪽 약 400m 해상에서 애월선적 J호(연안복합·7.3t·승선원 3명)가 압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

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보내 승선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J호는 5일 한림항으로 무사히 입항했다. 김현석기자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24K 골드바 1돈 [5명]

3등 50000 원

푸집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i7+ [1명]

2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0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프리미엄 BD-TD90M

3D 무브 3way 노출 탈취

3way 노출 탈취

자동 디스펜서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399,000원

379,000원

BD-AC50N

NEW BD-AE91

3way 노출 3D 무브

정품 필터 (2개)

199,000원

269,000원